

# 6개월 만에 미중 정상회담, 명분의 시진핑 vs 실리의 트럼프

- 5월 14일 6개월 만에 미중 정상회담 개최. 양국 긴장 완화 무드 형성
- 대만 문제에 강경했던 시진핑. 이를 지렛대로 실리를 트럼프는 실리 챙겨
- 미중 긴장 완화는 긍정적.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 반도체 수요 기대

## 6개월 만에 미중 정상회담 개최. 대만 이슈에 강경했던 시진핑

2026년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약 8년 6개월만에 이뤄졌다. 양국 관계의 긴장을 관리하고 경제적 실리를 챙기려는 성격이 강했다.

경제적 실리와 안보적 긴장 완화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시진핑은 대만 문제에 대해 "잘못 다루면 미·중이 충돌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며 미국의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예상 밖으로 강경한 스탠스였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에 대해 별도의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지렛대로 활용했다.

## 대만 이슈에 유보적인 스탠스를 취한 트럼프. 실리를 챙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이슈에 있어서는 현상 유지와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대만해협의 안정을 당부하는 수준에서 말을 아꼈다.

한편, 300억 달러(약 41조 원) 규모의 비민감 소비재(생활 가전, 의류, 완구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는 미국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2025년 10월 부산에서 합의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조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최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는 유지하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H20 등 '중국 맞춤형 칩'이나 범용 시 칩에 대해서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미국 기업들의 공급 안정성과 중국 시장 점유율을 회복,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미국은 대중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보잉(Boeing) 항공기 대량 도입과 '3B'(보잉, 쇠고기, 대두) 구매 확대(25년 대비 +20%)를 압박했고, 중국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미국 농가, 농산물 기업들의 수익성 보장과 물가 안정을 위한 합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중국은 펜타닐 원료 단속 협조를 조건으로 중국산 일부 품목에 부과했던 '펜타닐 보복 관세'를 20%에서 10%로 10%p 인하하는 조치를 얻었다. 관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대만에서 오판에 의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미·중 군 당국 간 핫라인을 상시 가동하고, 대만 해협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 미중 긴장 완화는 긍정적.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 반도체 수요 기대

미중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 정상 간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 강도를 낮추고, 교역/관세 분야에 있어서도 휴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중 긴장 완화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범용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규제 완화가 실제 중국 수출 확대, 추가적인 수요 유입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미국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국 반도체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림 1. 미중 정상회담에서 경제/무역 분야 주요 내용. 펜타닐 관세 20%에서 10%로 인하. 향후 관세 인하, 면제 방안 추진  
구매 이행, 확대는 긍정적으로 합의, 상설 기구 설치**

경제/무역 분야

- 관세 체계
  - 미국은 펜타닐 원료 단속 협조를 조건으로 중국산 일부 품목에 부과했던 '펜타닐 보복 관세'를 10%p 인하
  - 300억 달러(약 41조 원) 규모의 비민감 소비재(생활 가전, 의류, 완구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 중국의 금융 시장 개방 확대와 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미국이 추가적인 고율 관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일부 조정하는 방안 논의"
- 구매/이행 관리
  - 지난해 합의된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와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등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
  - 미국은 대중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보잉(Boeing) 항공기 대량 도입과 '3B'(보잉, 쇠고기, 대두) 구매 확대를 압박했고, 중국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
  - 비민감 분야의 구매 이행과 제한적인 관세 조정을 논의할 상설 기구 설치

자료: 국내외 주요 언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중동 리스크 분야 주요 내용.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반대 성명은 발표했지만, 이란 제재에 있어서는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타협  
이란, 중동 리스크**

- 호르무즈 해협
  - 양국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은 어떠한 경우에도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
  - 미국은 중국이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긴장을 완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 중국은 이에 화답하여 이란과의 고위급 채널을 통해 '해상 안전 보장'을 설득하기로 함
- 대이란 제재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매를 문제 삼았으나, 시 주석은 에너지 안보 권리를 주장하며 맞섬. 다만,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타협

자료: 국내외 주요 언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술/자원 분야 주요 내용. 중국 맞춤형 칩, 범용 AI 칩 규제 완화,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 지속 AI 기술 악용을 막기 위한 공동 안전장치 합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조치 26년말까지 연장

## 기술/자원

- 반도체 수출 통제
  - 2nm 이하 공정 장비 및 최신 AI 학습용 가속기(H100/B200급 이상)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는 유지
  - 엔비디아의 H20 등 '중국 맞춤형 칩'이나 범용 AI 칩에 대해서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 보장 가능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 유예를 '무기한'으로 명문화하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자산 가치 하락 위험 방어
- 기술 갈등
  - 틱톡(TikTok) 합작법인 모델을 첨단 기술 분쟁 해결의 참고 사례로 언급
  - 인공지능(AI) 안전성 및 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고, 인공지능(AI) 기술의 무분별한 악용을 막기 위한 '공동 안전장치'를 만들기로 합의(특히 금융 시스템 해킹 위험 방지 등)
- 희토류 · 핵심 광물
  - 2025년 10월 부산에서 합의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조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 중국은 미국 및 주요 동맹국 기업들에 대해 개별 허가가 아닌 '포괄적 일반 라이선스'를 발급하여, 반도체 및 방산용 희토류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약속

자료: 국내외 주요 언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 주요 내용. 강경한 시진핑 주석에 대해 트럼프 실리를 얻기 위한 휴전 결정

#### 대만 문제

- 시 주석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만약 이 문제가 잘못 다뤄질 경우 "양국 관계의 전체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
- 미국은 기존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나 무력 사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양국은 오판에 의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미·중 군 당국 간 핫라인을 상시 가동하고, 대만 해협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로 합의

---

자료: 국내외 주요 언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시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